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키투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든 타임	25 아침마당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00 TV 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10 좋은 아침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TV 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00 SBS 뉴스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2	00 직언직설	00 대조영(재)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3	20 쾌도난마	00 KBS 뉴스4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4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5	6	00 KBS 뉴스6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7	10 갈매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8	20 관촬 카메라 24시간	00 KBS 뉴스8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뉴스10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11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12	00 먹거리 X 파일(재)	00 KBS 뉴스12	00 KBS 뉴스 12	00 SBS 뉴스



“감초는 (영화에서) 빠지면 안 되는 역할이에요. (감초가 빠지면) 그 약은 써서 못 먹죠. 삼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감초입니다.”

“명품 조연, ‘신 스틸러’ 등의 수석이어 달고 다니는 배우 오달수(47)는 바로 그런 감초 역할을 도맡아 했다. 심드렁한 말투를 특색 내뿜는 오달수의 무표정한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

“제 실제 성격이요? 진중하죠. 집안 가훈이 ‘말을 더듬어라’입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하면서 하려고 아버지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말을 더듬어라. 봐요, 지금도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진지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던지는 말은 그러나 묘하게 웃음을 유발하는 힘이 있었다.

오달수는 11일 개봉한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에서 천재와 허담을 넘나드는 명탐정 김민(김명민 분)을 도와 사건을 파헤치는 서필 역을 맡았다. 2011년 설 극장가를 휩쓴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후속편이다.

함께 호흡을 맞춘 김명민에 대해서는 “원래 ‘삼마이(삼류라는 뜻의 일본어)과’라며 “조선명탐정”을 찍을 때는 완전히 파타파타 물 만난 고기였다”고 설명했다.

“김명민은 무명 시절을 오래 겪어서 안 해 본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김명민을 생각할 때 지독하게 삶을 빼서 뼈밖에 안 남은 뭐 그런 모습이지. 하지만 코미디를 정말 즐기면서 하더군요. 물론 다른 역할도 즐길 양반이지만요. 속으로 ‘저거 진짜 삼마이다’ 생각했죠.”

“올드보이”(2003), “음란서생”(2006), “구타유발자들”(2006),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방자전”(2010),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2011), “조선명탐정: 사라진 놈의 딸”(2015) 등 그동안 오달수가 출연한 작품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영화 속 캐릭터가 비슷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감초니까요. 감초면 감초답게 해야죠. 그런 얘기마저도 신경 안 쓰는 게 진정한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있어요. 부산과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몇십 년 운전을 하고 보니 지구를 백 바퀴 돌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미있지 않아요? 물론 화젯거리로 되겠죠. 1억 배우라는 것도 화젯거리일 뿐이죠.”

“도둑들”에 이어 ‘7번방의 선물’, ‘변호인’, ‘국제시장’ 등 그가 최근 출연한 작품이 연달아 흥행을 거두며 ‘천만 클럽’에 가입했다.

오달수는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관객이 1000만명이 본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변호인’도 그렇고, ‘국제시장’도 그렇고, ‘7번방의 선물’도 그렇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죠.”

그러면서도 “연극 무대에서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영화에 1000만명이 들든 아무 필요 없다”며 “내 일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잘 일귀갈까,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그게 인간이 하는 가장 큰 고민 아니냐”고 반문했다.

“배우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를 버리고 관객을 위해 사는 것”이라던 오달수는 “한편으로 배우만큼 아름다운 직업도 없다”고 말했다.

“저는 그냥 다른 수석이어 말고 ‘배우’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배우라는 말은 아무나 못 가져요. 영국, 독일, 체코 등 연극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비행기 화물을 싣다가도 직업에 ‘배우’라고 쓰여 있으면 (직원이) 일어나서 짐을 받아요. 그만큼 유럽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죠. 엄격한 자기 관리와 통제, 작품을 보는 눈, 세계를 바라보는 성찰력, 이런 모든 게 갖춰져야 배우입니다. 전 아직도 ‘배우’ 자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귀신이 씌웠다 봅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10 스포츠웨어 놀자 <스포츠타임즈>	19:50 다문화 공부열전 <다문화 열전>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세계견문록>	14:45 EBS 2TV 개국 특별생방송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다>	20:40 다큐 오늘 <세계대사행 <홍요의 땅 남아프리카공화국>>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최고의 요리비결>	16:20 바블버블 마린 <바블버블 마린>	21:30 한국전쟁 <한국전쟁>
07:00 시계마을 타기독(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6:35 원더볼즈 <원더볼즈>	21:50 극한직업 <극한직업>
07:15 곤(재)	11:20 세계대사행 <세계대사행>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딱지(재) <호기심딱지>	22: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7:30 책과 땅(재)	12:00 EBS 정오 뉴스 <정오 뉴스>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뽕뽕이>	23:05 지식채널e <지식채널e>
07:45 로보카 폴리(재)	12:10 EBS 초대석 <초대석>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3:15 <특별 대토론>
08:00 당동당 유치원 <당동당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지식채널e>	17:30 로보카 폴리 <로보카 폴리>	23:30 <특별 대토론>
08:20 뽕뽕뽕 뽕뽕(재) <뽕뽕뽕 뽕뽕>	13:1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17:45 뽕뽕뽕 뽕뽕(재) <뽕뽕뽕 뽕뽕>	24:35 한국영화특선 <아름다운 팔도강산>
08:35 방귀대장 뽕뽕이 <방귀대장 뽕뽕이>	13:3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18:00 생방송 퓌크! 보니하니 <생방송 퓌크! 보니하니>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호기심딱지>	13:50 내이름은 핑키 <내이름은 핑키>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4:00 뽕뽕뽕 뽕뽕 <뽕뽕뽕 뽕뽕>	19:30 EBS 뉴스 <EBS 뉴스>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9:35 따개비 루 <따개비 루>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일짜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II-일짜개념>
00:50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화통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02:30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03:20 <수학II>	15:40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6:30 <수학II>
05:00 뉴탐스런 <화학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지구과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06:40 <세계지리>	19:20 <지구과학I>
07:30 <법과 정치>	20:00 <법과 정치>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
09:10 <이은주의 수학II>	21:50 <수학I>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2:30 박용의 이수문 만나는 경제 <영어>
11:00 <수학I>	23:10 2016 수능특강 <국어>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50 한겨울 교육 드라마 <한겨울 교육 드라마>
08:30 검정고시 교육 강좌 <검정고시 교육 강좌>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3 <백점공략 중학수학3>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3 <국어⑤⑥>
09:50 <수학(1)>	18:00 TV 중학 <수학(3)>
10:30 <수학(2)>	18:40 <수학(3)>
11:10 <국어③④>	19:20 과학탐정단 시드 <과학탐정단 시드>
11:50 <수학(2)>	19:40 사이먼-백만인의 지구뉴스 <사이먼-백만인의 지구뉴스>
12:30 EBS 특강 <화학>	20:00 EBS 인문특강 <인문특강>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영어>	20:50 EBS 기획리포트 <기획리포트>
13:50 <영어>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공모 나피디>
14:30 <역사>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수학3>
15: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22:40 TV 중학 <국어⑤⑥>
15: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23:20 필독 <사화2>
16:0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24:00 왕기초 중학 <수학3>

응답하라 ‘윤은혜’... 런닝맨 소환운동 열기 ‘후끈’

김종국과 재회 기대 리트윗 3만건 넘어

SBS TV ‘런닝맨’에 배우 윤은혜를 출연시키려는 일명 ‘윤은혜 소환운동’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타고 화제를 모으고 있다. SBS는 지난 5일부터 공식 트위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윤은혜 런닝맨 소환운동’이 나올 만에 리트윗 3만3000개를 넘어섰다고 10일 밝혔다. 또 SBS페이스북에서의 ‘윤은혜 런닝맨 소환운동’에는 ‘좋아합니다’가 90만 건이 넘어섰다. ‘윤은혜 소환운동’은 지난 2일 SBS TV ‘힐링캠프’에 출연한 가수 김종국이 8년 전 SBS TV ‘X맨’에 함께 출연하며 가장 커플로 인기를 모았던 윤은혜를 언급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김종국과 윤은혜는 열애설까지 낳았다. 김종국은 ‘힐링캠프’에서 “윤은혜 씨가 예전에 이상형이었



다. ‘X맨’도 그렇고 윤은혜 씨와 추억이 많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며 영상 편지를 띄웠다.

‘힐링캠프’ 방송 이후 김종국이 고정 멤버로 활약 중인 ‘런닝맨’은 공개적으로 ‘윤은혜 런닝맨 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윤은혜 소환운동 리트윗이 당초 목표였던 1만 개를 훌쩍 넘기며 네티즌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상영관 확대

내일부터 아트영화관 중심 재개봉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제작사인 삼거리픽처스의 엄용훈 대표가 9일 “12일 자로 영화의 완벽한 재개봉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기업 영화관 측에 아트영화관 중심으로 개봉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반응에 따라 일반 영화관으로도 상영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년 기준으로 예술영화관을 중심으로 전국 24개 상영관에서 상영되던 ‘개를 훔치는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44개 상영관으로 늘어난다. CGV의 경우 현재 3개 스크린에서 선보였지만 12일부터 일반 상영관 3곳을 포함해 총 18개 스크린에서 영화를 상영기로 했다.

작년 12월31일 개봉한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도 상영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상영관 확대 요청이 잇따랐고, 개그맨 박휘순, 가수 타블로, 배우 김수미 등의 응원에 이어 최근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도 상영회를 열기로 했다.

일 대표는 앞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광고비를 지출할 여력도 없이 재개봉을 선언하게 됐지만 오



직 관객의 평가와 응원의 힘으로 다시 달려보겠다”고 밝혔다. 영화는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고자 개를 훔치려는 10살 소녀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그린 작품으로, 미국 여류작가 바버라 오코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아역배우 이레를 비롯해 김혜자, 최민수, 이진희 등이 출연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1일(음 1월 23일 戊午)

子 48년생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60년생 다양성의 확보는 무궁한 발전의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72년생 좋은 소식을 전해 주려는 이가 보인다. 84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61, 77	午 42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보면 대국을 망친다. 54년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66년생 잡다함을 정리하지 못하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다. 78년생 통합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89
丑 49년생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래의 전망을 밝게 하리라. 6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취할 수 있다. 73년생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85년생 현상은 변화가 알리는 신호탄이다. 행운의 숫자 : 66, 87	未 43년생 주변인의 그 어떤 참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 55년생 일관된 노력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만회할 수 있으리라. 67년생 계속 되면서 회의를 느낄 수 있다. 79년생 생각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이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14
寅 38년생 드러나지 않은 결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야겠다. 50년생 거시적 안목이 필요한 때이다. 62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74년생 관리를 잘 해두자. 86년생 진중한 행동들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38, 02	申 44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이 휩쓸릴 수 있다. 56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행해야 할 때다. 68년생 불만이라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80년생 부담스럽다면 예초에 감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6, 55
卯 39년생 바탕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을 보장 받은 셈이다. 51년생 일지치키는 것이 옳다. 63년생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합리적이다. 75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87년생 절제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1, 53	酉 45년생 활동에 비례하는 이익이 따를 것이니 본격적으로 나서자. 57년생 행동은 같이 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겠다. 69년생 핵심을 다루어야 한다. 81년생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4, 23
辰 4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으리라. 52년생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의 진행이 있다. 64년생 지극히 알찬 결과의 산출이 예상된다. 76년생 사막에 꽃을 심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해소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9, 46	戌 46년생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기대해 왔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8년생 조금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70년생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82년생 단정 짓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4, 60
巳 41년생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53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차 없이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65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77년생 오는 손바닥 말고 가는 손바닥 잡지 말자이다. 행운의 숫자 : 97, 62	亥 47년생 발단은 사소하지만 파급 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다. 59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써 내다 볼 줄 알아야겠다. 71년생 응원할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83년생 상황을 잘 살펴 본 후에 행하. 행운의 숫자 : 73, 9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